

「王世子出宮圖」의 服飾 研究 I

—입학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 은 주

한성대학교 이공대학 의류직물학과

교수 임 재 영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조교수 홍 나 영

目 次

I. 서 론

II. 「王世子出宮圖」의 회화사적 의의

III. 「王世子出宮圖」를 통해 본 王世子 入學禮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인물 또는 특정주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린 그림을 기록화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기록화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궁중행사를 그린 進饌圖, 班次圖, 宴會圖, 陵行圖 등과 같은 儀軌圖가 있고 사대부들의 齋社契, 讀書堂契 등을 그린 契會圖가 있다. 또한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적인 사건을 주제로 하여 그린 東萊府殉節圖와 같은 그림들이나 宮闈圖나 地圖 처럼 한 시점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도 있다.¹⁾ 이들 기록화는 회화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극적인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사실을 가능한 정확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당시의 풍속이나 풍물을 알려주는 역사 연구의 훌륭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의 기본 자료인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王世子出宮圖」는 1817년 3월 甲寅일에 거행된

文祖世子(1809~1830)²⁾의 입학례 행사와 관련된 기록으로서, 왕세자가 小學을 배울 수 있는 나이³⁾가 되어 文廟에서 酌獻禮를 올리고 明倫堂에서 入學禮를 치른 후, 다음 날 受賀禮⁴⁾를 치루기까지의 일련의 의식 과정을 그린 것이다. 회화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중의식 중의 하나인 세자의 입학례 절차와 행사 참여인물, 관련 儀物 등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조세자의 입학 행사를 그린 기록화는 고려대 소장본 외에도 국립도서관 소장의 「春宮講學圖」, 연세대학교 소장의 「王世子入學圖」, 藏書閣 소장의 「王世子入學圖」,⁵⁾ 서울大學校 奎章閣 소장의 「翼宗大王入學圖」⁶⁾가 있다. 이 외에 일제초대 조선총독이었던 테라우치 마사케가 수집했던 것으로 최근에 경남대에 기증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 「丁丑入學圖帖」⁷⁾도 있다. 각 화첩은 등장

인물의 위치나 수, 의복의 색채에 있어 농담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구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동일 행사를 묘사한 화첩이 이렇게 많이 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입학례를 중요한 행사로 여겼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왕세자 입학례에 관한 연구는 정확한 절차와 형식, 또는 관여한 인물들을 밝힘으로써 왕실 행사에 대한 중요한 고증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의식 단계에 따른 복식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조선 후기의 궁중 복식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입학례를 고찰하기 위한 문헌자료로서, 「王世子出宮圖」(고려대 소장)에 실려 있는 기록과 더불어 『純祖實錄』를 기본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儀仗이나 器物과 같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經國大典』 및 『國朝五禮儀序例』, 『續大典』 등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회화자료와 문헌자료들을 통해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번 연구에서는 입학례의 복식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왕세자 입학례를 의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각 의식 절차에 참여한 이들의 복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王世子出宮圖」의 회화사적 특성

고려대학교 소장의 「王世子出宮圖」 화첩은 표지에 「王世子 出宮圖 純祖十七年 丁丑 全」이라는 帖名과 함께 ‘丁丑春...’이라는 干紀가 화첩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후기의 귀중한 기록화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기록화에는 행사장면이 중요하게 묘사된 반면, 산수는 배경을 이루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점은 山水가 위주로 표현되고 행사장면은 상징적으로만 다루어지던 조선초기 안견과 계통의 기록화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달라진 양상이다.⁸⁾

본 「왕세자출궁도」 역시 행사 장면에 역점을 두어 배경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인물의 동작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런 점, 당시의 건물이나 복식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서 당시 조선후기의 계획도, 진연도, 의궤도 등과 같은 다른 기록화 작품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문무백관들과 행사 장면을 俯瞰法⁹⁾으로 표현하면서 행사의 무대가 되는 건물은 사각형으로 배치하여 화면을 구획하였다. 회랑은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반듯반듯하게 배치하고 있어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며, 남북의 담장과 대문, 正殿을 비롯한 건물들은 정면에서 본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 양편을 연결하는 동서 회랑은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지붕만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편리한 대로 시각을 변화시켜 묘사하는 경향이 조선시대의 궁궐도를 비롯한 界畫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전통인 듯 하다.¹⁰⁾

이 화첩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들은 형태나 설채법이 거의 일정하다. 전체적으로 장면묘사의 기본틀이 정해진 보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작품만의 고유한 특색이 달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건물의 곳곳에 붉은 색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른 기록화의 건물도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며 이 밖에도 선으로 표현된 구름의 처리나 천막의 유연한 주름 처리 등은 작가의 개성으로 보인다.¹¹⁾ 또 제작 연대는 화원에 의해 제작되는 모든 궁중행사의 기록화들이 행사가 일어났던 丁丑年(1817)이거나 그 해에서 1, 2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한편 행사 연도가 1817년이면 김홍도(1745~1806추정)가 이 화첩의 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그의 것과 닮은 필치가 많이 스며 있어 흥미롭다.

「出宮圖」 화첩은 모두 16폭 3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3폭 6면에는 세자가 輿에 올라 대궐문을 나서는 의식을 기록한 「出宮儀」와 文廟에 몸소 제사하는 「酌獻禮」, 「入學儀(往復儀, 脩幣儀 포함)」 및 「受賀儀」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다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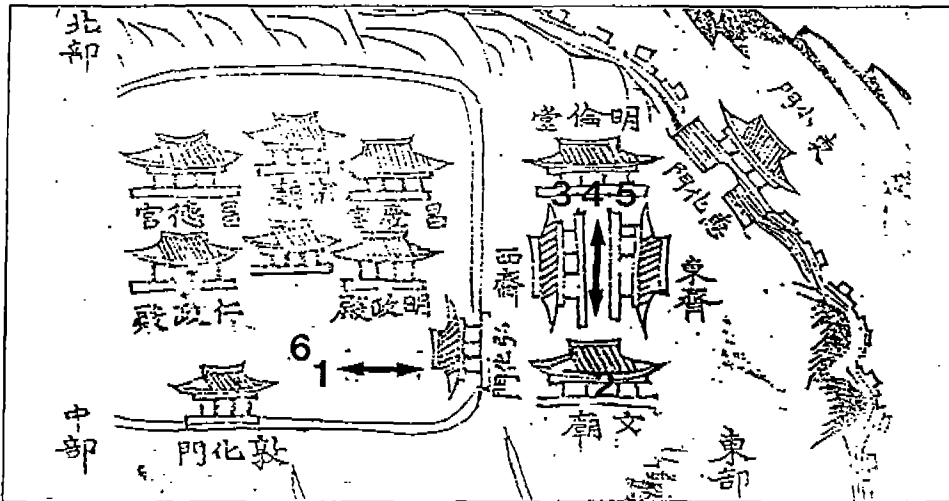
6쪽 12면에는 앞의 기록 중 중요한 장면을 그린 6쪽의 그림이 순차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 뒤를 이은 13면부터는 세자에게 經史와 道儀를 가르쳤던 世子待講院 官員 13人¹²⁾의 왕세자 입학울 경축하는 글이 품계 서열순으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당시 博士 겸 右賓客이었던 南公轍(1760~1840)의 謹啟이 있다.

그림 6쪽 중 제1쪽은 'ㄷ'자형으로 행렬을 이루며 출궁하는 장면이다. 화면의 상측부로 반 이상이 공간에 나타낸 건물은 자를 이용한 듯한 界畫로서 평면과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 다소의 어색함이 있으나 기록화로서 내용 전달에는 큰 무리가 없다. 상단 좌측에 정면으로 열린 문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렬은 다시 서쪽으로 난 문을 통하여 하단 우측으로 이어져 있다. 궁내 담장가의 나무들은 분홍색으로 붉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행렬에 참가한 인원들의 복식과 의장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오른쪽 위에는 담홍색과 옅은 노란색의 장식적인 瑞雲을 그려 넣기도 했다. 그리고 궁중행사를 그린 進寢이나 다른 儀軌

圖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공 왕세자는 화면 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빈 輿가 왕세자용으로 추정된다.¹³⁾

제2쪽은 성균관의 문묘 대성전에서 작헌례를 올리는 모습을 묘사한 「酌獻禮」이며, 제3·4·5쪽은 明倫堂에서 전개되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일련의 入學禮 장면이다. 특히 제3쪽은 明倫堂에서 유생 장명자가 왕복하면서 세자의 입학 뜻을 박사에게 알리는 「往復儀」 장면이다. 또 제4쪽은 「脩幣儀」로, 왕세자와 수폐를 든 일군의 행렬이 동문을 통과해 건물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제5쪽은 「入學儀」다. 즉 박사가 세자에게 小學을 읽어 주고 해석하는 장면이다. 마지막 장면인 제6쪽은 입학례를 치른 다음 날, 세자궁¹⁴⁾에서 종친·문무백관을 모시고 입학 축하례를 치르는 장면을 묘사한 「受賀儀」이다.

이상의 그림들은 순간적인 동작의 기록 사진을 보는 듯 일목요연하게 잘 묘사하고 있으며 참고로 6쪽의 장면이 행해진 장소와 이동로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행사 장소와 이동로(『新編 題集圖 瀛志』에 실린 漢陽圖 일부 · 1822)

행사1 出宮儀(重華門), 행사2 酌獻禮(成均館 文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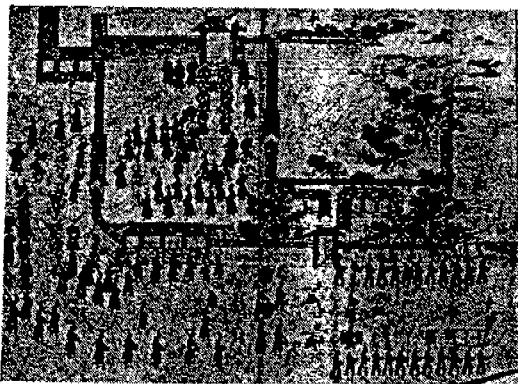
행사3 往復儀 · 4 脩幣儀 · 5 入學儀(成均館 明倫堂), 행사6 受賀儀(重熙堂)

Ⅲ. 「王世子出宮圖」를 통해 본 王世子 入學禮

1. 出宮儀

1) 의식 과정

翊衛司¹⁵⁾에서 伏衛를 常時처럼 배치한다. 司僕寺의 僉正¹⁶⁾은 弘化門 밖에 輦을 내 놓고 궁 문 밖에 輿를 내 놓는다. 官官¹⁷⁾들이 때에 맞춰 모이는데 각각 자기에게 알맞는 복장을 한다(文官은 黑團領, 武官은 器服을 갖춘다). 세 시각 전에 宮관이 궁 문 밖에 나아가 좌우로 나누어 서로 북쪽을 향하면 翊贊¹⁸⁾이 印을 진다. 陪衛之官(翊衛 2인은 雲劔을 차고, 司禦 2인은 弓矢를 찬다)이 모두 閣 밖에 나가 맞이 한다. 禮貌官(兼輔德)이 함 밖에서 꿇어 앉아 內殿하라고 칭한 후 外備를 알리면 왕세자는 雙童髻와 空頂幘, 袞龍袍를 갖추어 입고 輿를 타고 나간다. 예모관이 앞에서 인도하고 儀贊이 印을 지고 앞에 간다(왕세자가 蠶¹⁹⁾ 타기를 기다렸다가 인을 말에 실는다)(그림 2).²⁰⁾ 扇陪衛는 상시 처하고 弘化門에 이르러 東挾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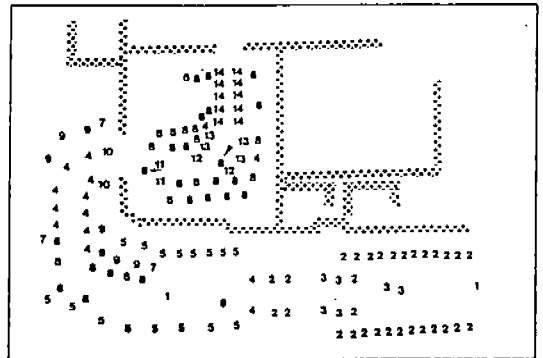


(그림 2) 출궁의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輿에서 내려 轎을 타시라고 청하면 왕세자는 내려 연으로 갈아 탄다.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잠시 머무르라고 한 후 배위지관은 말을 탄다. 예모관이 꿇어 앉아 앞드렸다가

일어나 물러 난 뒤 연이 움직이면 宮관은 모두 말을 탄다.

배위지관과 왕세자가 성균관에 이른다(廟司는 黑團領을, 儒生은 靑衿服을 입고 길 왼쪽에 나란히 서서 몸을 굽히고 있다가 왕세자가 지나가면 몸을 편다). 왕세자가 문묘 동문 밖 降輦所에 이르면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연에서 내리시길 청한다. 왕세자가 연에서 내리면 예모관이 便次²¹⁾로 안내한다. 산선 배위는 상시처럼 배워한다.



(그림 3) 고려대 소장본 「출궁도」의 인물 배치도와 인원수
복식 유형 1(2명), 2(30명) 3(6명), 4(14명),
5(16명), 6(4명), 7(2명), 8(33명), 9(7명),
10(2명), 11(2명), 12(2명), 13(4명), 14(10명) ·
총 1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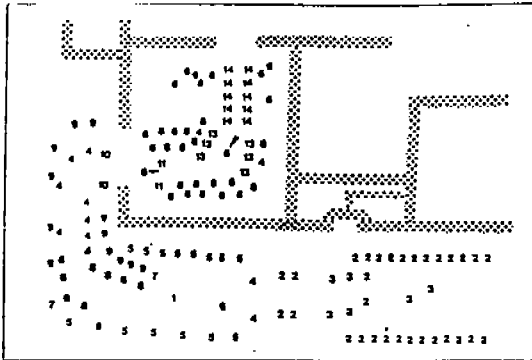
2) 「출궁의」 분석

(1) 행사 관련인물

「출궁의」에 묘사된 행차 인원의 수는 총 136명(왕세자 제외)이다. 왕세자의 출궁의에는 주로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의 인원들이 동원된다. 「출궁도」의 기록과 「국조오례의서례」를 참조하여 출궁의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²²⁾ 분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동일 행사를 묘사한 장서각 소장본의 출궁도와도 건물의 배치나 등장인물의 위치·수 등에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비교를 위해 두 「출궁도」의 등장인물을 복식 유형별로 분류. 배열시켜 보면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이와 같은 차이는 그림의 정확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화폭에 모든 참여 인물들을 포함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복식 유형과 인물들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한편 참여인물들을 알아보기 위해 『국조오례의』의 왕세자의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고, 「출궁도」의 내용은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그림 4) 장서각 소장본 「출궁도」의 인물 배치도와 인원수
복식 유형 1(1명), 2(30명) 3(6명), 4(12명), 5(15명), 6(9명), 7(2명), 8(30명), 9(12명), 10(2명), 11(2명), 12(0명), 13(6명), 14(10명) · 총 137명

<표 1> 「국조오례의」의 왕세자의장

인 물	역 할	복 식	
의 장	麒麟旗2(좌·우) · 白澤旗2(좌·우)	皮帽子 · 青衣	
익위사 서리(2인)	중앙에 印馬를 扶持함.	-	
인로(8인)	-	皂巾 · 青衣	
익위사 관원	뒤따라 감.	-	
의 장	玄鶴旗1(左) · 白鶴旗1(우) · 鏡 · 刀 · 瓜 · 扇 · 旒 · 旒 · 令字旗 · 豹骨朵子(좌) · 熊骨朵子(우) · 令字旗2(좌·우) · 銀鏡2 · 金鏡2 · 銀粧刀(좌) · 金粧刀(우) · 金(좌) · 鼓(우) · 絜龜仙人旗2(중앙 좌·우)	皮帽子 · 紅衣	
	關關馬 2필(중앙 좌·우)	搥色笠 · 青衣	
	金立瓜(좌) · 銀立瓜(우) · 旒節(좌·우) · 旒(좌·우) · 雀扇(좌 2·우2) · 徽 · 青扇 · 青蓋(중앙 좌·우)	皂巾 · 青衣	
사벽(16員)	烏杖(좌·우)	常服	
별감(10인)	중앙에 좌우로 나누어 섬.	皂巾 · 黑衣	
	청양산1(중앙)		
충찬위(16원)	뒤를 이룸	常服	
-	上馬臺를 1인이 받듦.	黑笠 · 青衣	
(60인)	왕세자 輦을 받듦	皂巾 · 青衣 · 鶴幣 · 紅帶 · 青行膝 · 雲鞋	
사복시 관원(4원)	왕세자를 좌우에서 모심	常服	
시종관	좌·우 익위	칼을 차고 왕세자 배위함	-
	좌·우 사어	궁시를 구비하여 왕세자 배위함	-
중찬위	衣 를 받듦.	-	
시강원 · 익위사 관원	황렬로 행진하면서 시위한다.	常服	

〈표 2〉 『출궁의』 관련 인물

인 물(품계)	所屬衙門	역 할	복 식
王世子	-	입학례의 장본인	쌍동계 · 궁정책 · 곤룡포
僉正(從4品)	司僕寺	輿 · 輦 차비	-
書吏	司僕寺	印馬 扶持	초립 · 황의
禮貌官(兼輔德 · 從3品)	世子侍講院	왕세자 좌측 보필	사모 · 흑단령
侍講院官員들(공관)	世子侍講院	의장대 뒤 따름	상복(사모 · 흑단령)
左 · 右 司禦(從5品)	世子翊衛司	陪衛之官(弓矢를 갖춤)	흑립 · 철릭
左 · 右 翊衛(正5品)	世子翊衛司	陪衛之官(雲劔을 갖춤)	사모 · 흑단령
翊贊(正6品)	世子翊衛司	印을 지고 감	사모 · 흑단령
익위사 관원들	世子翊衛司	중앙에 좌우 행렬	흑립 · 철릭 · 궁시, 초립 · 홍철릭
의장대 및 차비	世子翊衛司 · 忠 佐衛 의	의장물 · 언월도 · 창 · 鳥銃 · 왕세자輿 · 繖扇 差備	전립 · 창의 · 전복, 청모 · 홍의, 청 모 · 홍학창, 조건 · 학창 · 창의, 황 립 · 홍철릭, 지모 · 홍직령, 사모 · 흑단령, 유건 · 직령, 전립 · 동다리 · 전복 등

(2) 의 장

의식은 일상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비범함을 집약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일상생활의 시간이나 공간과 구별되는, 엄격하고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만들게 된다. 궁중의식에서는 鹵簿 즉 어가행렬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부라는 것은 국가적인 규모의 예를 갖춘 의식²³⁾으로서, 왕세자입학과 같은 吉禮 행사에서도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왕세자가 성군관에 입학할 하기 위해 가는 의식 중에 왕세자의 儀仗이 등장한다. 왕세자입학례의 의장은 준비단계, 주목적 수행단계, 매듭단계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출궁도」는 주목적 수행단계²⁴⁾ 부분에 해당되며 길인도와 분장, 수행 행차로 구성된 왕세자의 출궁 의장은 왕의 노부 의장보다는 훨씬 소박하다고 하겠다. 영 · 정조대의 왕세자의 의장대 인원은 34인이라고 한다.²⁵⁾

행렬의 초두에는 鹿笠에 白駱衣, 黑鶴幣(더그레)를 입고 푸른 帶를 맨 인물이 가죽 등채를 들고 씩씩하게 활보하고 있고, 뒤쪽 양 옆으로는 의장대가 12인씩 줄을 지어 행진한다. 『國朝五禮儀序

例』의 鹵簿圖說의 내용²⁶⁾을 참조하여 「출궁의」에 나타난 의장대의 모습을 진행방향 순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그 외에 가귀선인기, 금 · 고, 청산, 기치 등이 뒤따른다.

의장물 중 鍍金 의장물과 鍍銀 의장물이 차례대로 순서를 바꿔가며 배치된다. 그림상에 鍍金物은 황색으로, 鍍銀物은 검게 나타나는데 『국조오례의서례』의 기록과는 金 · 銀 배치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국조오례의서례』에 보이는 의장물의 모습을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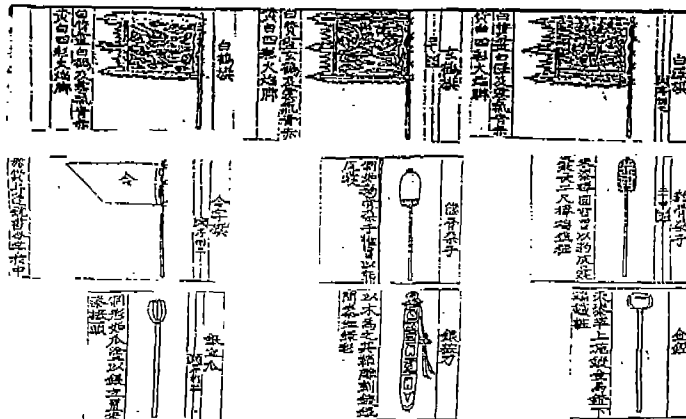
좌우 의장대 사이로 다시 행렬이 이어지는데 華氈으로 덮힌 印馬를 草笠 · 黃衣의 인물 2인이 양쪽에서 이끌고 그 뒤에 鶴龜仙人旗를 청모 · 홍의의 두 인물이 들고 있다. 그 뒤에는 양쪽으로 두마리의 關關馬를 이끄는 초립 · 황의의 인물들이 있다. 그 다음엔 跋가 양쪽으로, 靑傘, 흑립 · 철릭의 언월도를 든 인물 둘, 蓋를 든 단령 인물 하나, 왼손에 등채를 든 근장 군사 1인, 언월도를 든 좌우의 인물, 그 뒤를 조총과 창을 든 인물이 번갈아 자리하면서 좌우로 8줄이니 16인이 있다. 또 황립의 홍의를 입은 8인이 조총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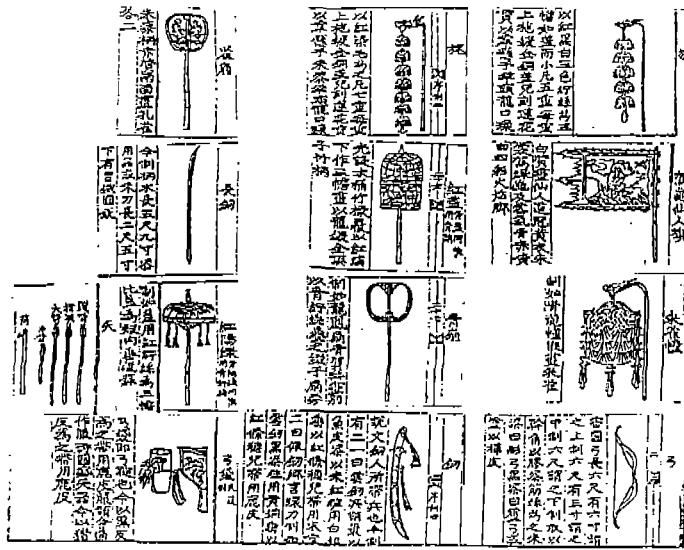
간다. 동개와 궁시를 어깨에 맨 흑립과 철릭 차림의 10인이 가고 그 뒤로 전립에 동다리와 전복을 입고 동개와 궁시를 맨 인물이 들 간다. 黃旗를 든 청모·홍의의 執人이 이극문 앞을 지나며, 중화문

과 이극문 사이에는 시강원 관원들과 왕세자 연을 때는 총관위 10인과 산선·배위지관 등이 줄지어 있다.

〈표 3〉 「출궁의」의 王世子 儀仗

순서	좌측열	우측열	持物(國朝五禮儀序例 卷之二 嘉禮 肅簿圖說)	의장대 복식
1	麒麟旗	(좌 동)	(「국조오례의」 왕세자의장조에 기록이 있으나 「서례」에는 보이지 않음)	靑帽·紅衣 (「王世子出宮圖」)
2	白澤旗	(좌 동)	白質畫白澤及雲氣青赤黃白彩火焰脚	
3	玄鶴旗		白質畫玄鶴及雲氣青赤黃白彩火焰脚	
	白鶴旗		白質畫白鶴及雲氣青赤黃白彩火焰脚	
4	豹骨朶子		朱柒棒圓首冒以豹皮囊長二尺棒端鐵柱	
	熊骨朶子		制如豹骨朶子惟冒以熊皮囊	
5	令字旗	(좌 동)	赤質上透鏡書令字於中	
6	銀鍔		(金鍔과 형태는 같으나 鍔銀)	
	金鍔		朱柒竿上施鍔金馬鍔下端鐵柱	
7	金粧刀		(銀粧刀와 형태는 같으나 鍔金)	
	銀粧刀		以木爲之其鞘雕刻鍔銀間柒紅綠彩	
8	銀立瓜		制形如瓜塗以金立置朱柒棒頭	
	金立瓜		(銀立瓜와 형태는 같으나 鍔銀)	
9	旌	(좌 동)	以紅黑白三色紵絲爲三檐如蓋而小 凡五種每重 上施鍔金銅蓋兒刻蓮花貫以韋懸于竿頭龍口環	
10	旌	(좌 동)	以紅柒毛爲之凡七重每重下施鍔金銅蓋兒刻蓮花貫以韋懸于朱柒竿頭龍口環	
11	雀扇	(좌 동)	以木爲匡赤漆畫牧丹花以草爲面	
12	雀扇	(좌 동)	以木爲匡赤漆畫牧丹花以草爲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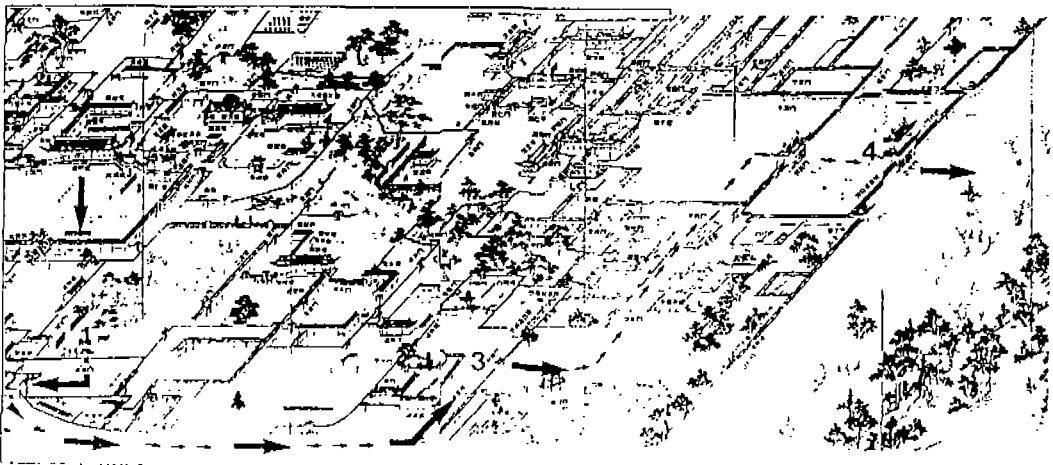
(그림 5) 왕세자 의장물(『國朝五禮儀序例』)

(3) 왕세자 輿·輦과 행로 추정

왕세자 輿의 행로는 왕세자의 거처와 관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자궁은 東宮, 春宮이라고 했으며 또 그가 공부하는 시강원은 春坊이라고 했다. 즉 壽康齋를 중심으로 세자와 관계되는 공간을 배치하였는 바, 동궐의 동남측 지역이 동궁의 생활공간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한편 『純祖實錄』에 貳極門을 지나 弘化門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東闕圖』²⁸⁾에서 貳極門

을 찾아 보면 창경궁 동남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출궁도에서 왕세자의 輿가 놓여진 문은 重華門이 되고 곧 이극문을 지나게 된다. 또한 흥화문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館峴을 거쳐 성균관 문묘의 동문 밖에 도착한다고 하고 또 돌아올 때는 흥화문에서 銅龍門을 지나 이극문으로 들어와 大內로 들어온다고 하니 출궁 행로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6).



(그림 6) 왕세자 출궁 추정로(1: 重華門, 2: 貳極門, 3: 銅龍門 4: 弘化門)

그리고 왕세자의 행차용 車駕²⁹⁾는 궁내 이극문에서 홍화문까지는 輿를 타고 와서 ‘홍화문에서 연으로 갈아탄다’고 하니 홍화문에서 성균관까지는 세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轎으로 갈아 타는 것이다. 따라서 輿는 중문 밖 궁내용, 轎는 대문 밖인 궁외용임을 알 수 있다.

2. 酌獻禮

1) 의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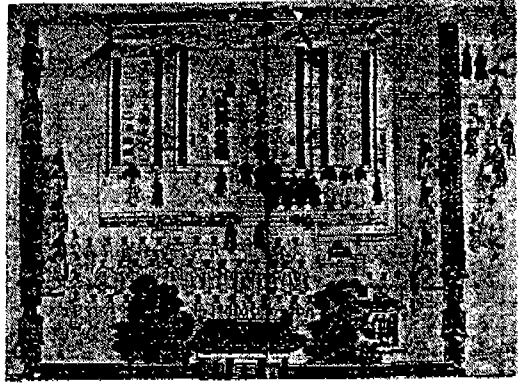
작헌례를 행할 시간이 되면 예모관이 편차 앞에 나아가 꿇어 앉고 내엄하라고 칭한 후, 작헌례를 행하시길 청한다. 왕세자가 學生服을 갖추 입고 나가고 배위는 상시 처럼 한다. 예모관이 앞에서 인도하여 東門(산선 및 배위 등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문밖에서 기다린다)으로 들어가 拜位를 취하여 서향으로 선다(예모관은 물러나 왼쪽에 부복한다).

贊者が ‘四拜’하라고 창하면 예모관은 ‘鞠躬四拜興平身’하시라고 칭한다. 왕세자는 국궁 사배하고 몸을 일으킨다. 학생들도 모두 사배한다(먼저 절한 사람은 하지 않는다).

예모관이 인도하여 왕세자를 盥洗位³⁰⁾에 나아가 북향하도록 한다. 손을 씻는다(揮巾은 兼輔德, 兼司盥, 沃水是 弼善이, 酌水是 文學·兼文學이, 承水是 司盥, 進巾은 兼弼善이, 受巾은 說書가 맡는다).

왕세자를 東階로 인도하여(左右陪衛 여러 명이 따라 오른다) 正位尊所에 나아가 서향한다. 執事者 1인이 罌을 들고 酌酒하고 從官 두 사람이 爵에 受酒한다(酌酒는 兼文學이, 受酒는 弼善이 맡는다). 예모관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神位 앞에서 북향하고 무릎을 꿇으시라고 칭하면 왕세자는 꿇어 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香奩를 받들고 한 사람은 香爐를 받든다. 꿇어 앉은 예모관이 三上香 하시라고 칭하면 왕세자는 세 번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神位 앞에서 향로를 올리면(그림 7) 從官(兼弼善)이 꿇어 앉아 술잔을 채운다. 예모관이 술잔을 올리라고 칭하면 왕세자는 술잔을 잡고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從官(兼文學)에게 주면 신위 앞에 드린다. 예모관이 부복했다가 몸을 펴라고 칭하면 왕세자

는 부복했다가 몸을 편다.



(그림 7) 작헌례

예모관의 인도로 왕세자는 戶를 나와 配位尊所에서 서향한다. 집사자가 罌을 들고 酌酒하면 종관이 爵에 술을 받는다. 예모관의 인도로 왕세자는 四聖神位³¹⁾ 앞에 나아간다. 행례는 모두 위의 의례와 같다(東一位에는 文學이 奉爵하고 兼司書가 奠爵한다. 西一位에는 兼文學이 봉작하고, 司書가 奠爵한다. 東二位에는 弼善이 봉작하고 說書가 전작한다. 西二位에는 弼善이 봉작하고 說書가 전작한다).

예모관의 인도로 세자는 내려와 처음 위치로 돌아가서 配位酌獻을 마친다. 집사자가 나뉘어져서 殿內와 兩廡에 從享된 神位³²⁾ 앞에 나아가 奠 드리는 것을 돕는다. 그 일이 끝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贊者が ‘四拜’ 칭하면 예모관이 꿇어 앉아 ‘국궁 사배 흥평신’ 하라고 칭한다. 왕세자가 국궁 사배하고 몸을 일으킨다. 학생들이 모두 사배하면 예모관의 인도로 왕세자는 편차로 돌아오는데 배위는 보통 때와 같다.

2) 작헌례 분석

(1) 행사 관련인물

작헌례는 왕세자가 입학을 하기 위해 성균관의 大成殿에서 文宣王 즉 공자에게 제물을 올리는 의식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략 <표 4>와 같다.

〈표 4〉 작헌례 참여인물

인 물(품계)	所屬衙門	역 할		복 식	
왕세자		작헌례 제관		학생복	
예모관(검보덕·종3품)	세자시강원	세자 안내 및 보필		사모·흑단령	
좌·우 익위(배위지관)	세자익위사	배위(운검 소지)		사모·흑단령·운검	
좌·우 사어(배위지관)	세자익위사	배위(궁시 소지)		흑립·철릭	
찬자	성균관관원	작헌례 진행		지모·홍직령	
학생들	성균관유생	작헌례 참관자		학생복	
검보덕(예모관·종3품)	세자시강원	揮巾	왕세자 보좌	사모·흑단령	
겸사서(정6품)	세자시강원	취건	사성신위 奠爵(동1위)		
필선(정4품)	세자시강원	沃水	正位 受酒 사성신위 봉작(동2위) 사성신위 봉작(서2위)		
문학(정5품)	세자시강원	酌水	사성신위 奉爵(동1위)		
겸문학(정5품)(좌)	세자시강원	작수	正位 酌酒(從官), 奠爵 사성신위 奉爵(서1위)		
사서(정6품)	세자시강원	承水	사성신위 奠爵(서1위)		
겸필선(정4품)	세자시강원	進巾	正位奠所에서 奉爵		
설서(정7품)	세자시강원	受巾	사성신위 奠爵(동2위) 사성신위 奠爵(서2위)		
집사자	성균관유생	罷 들고 酌酒, 正位 향합(좌)·향로(우)·配位 및 殿內 東西·兩廡에			학생복

(2) 작헌례 관련인물과 祭器의 위치

작헌례는 대성전에서 공자와 현유들에게 작을 올리는 의식이다. 대성전 내 중앙에 공자 즉 문선왕을 앉히고 이를 正位라고 한다. 그 좌우에 중국의 四聖을 모시는 것을 配享이라고 한다. 또 殿內 從享이 있어서 중국 성인을 좌우 8 분씩 16분을 모시고 동·서 兩廡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현유 56 인씩 112인을 모신다. 정·배위, 종위는 대성전 내에 배치되어 있지만 동·서무 종위는 대성전 밖 좌우에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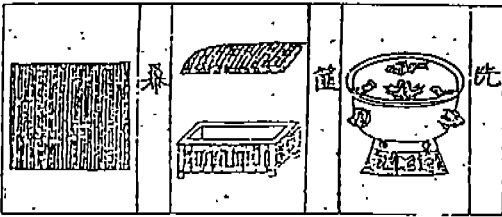
작헌례를 하기에 앞서 왕세자를 포함한 헌관들은 東階의 동남쪽에 설치된 盥洗位에서 손을 씻는다. 붉은 탁자 위에 손을 씻기 위한 물그릇(洗)과 수건을 담은 籠가 마련되어 있다(그림 8). 한편 화면 우측의 전 밖으로 붉은 옷감이 덮힌 세개의 탁자에 그릇이 올려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 그릇은

작헌례용 술이 담겨져 있는 술항아리이다. 『국조오례의서례』 기록에는 正位와 配位의 준으로 犧尊³³⁾을 각각 사용하는데 정위의 사준은 동남쪽에, 배위의 것은 정위의 사준 동쪽에 배치하고 殿內 동서와 양무에는 각각 象尊을 서쪽에 마련한다고 했다(그림 9).³⁴⁾ 그러나 「작헌례」그림상에는 「국조오례의서례」의 기록과는 달리 동쪽에서부터 전내 東從享用 尊이 있고 두번째에 정위용 사준, 세번째에는 배위용 상준이 놓여져 있다. 그리고 서쪽에는 전내 서중향용 尊 하나가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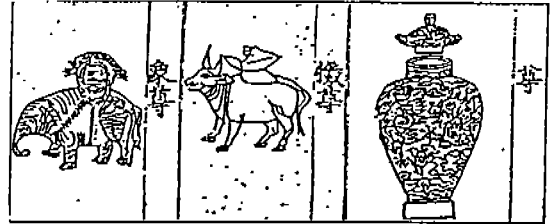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祭禮의 절차에서 祭主의 왼편에 있는 左執事가 제주에게 잔을 드리면 右執事는 제주의 잔에 祭酒를 붓고 제주가 오른손으로 잔을 받들어 左執事에게 준다. 이를 받은 좌집사가 祭床에 올리므로³⁵⁾ 堂內 작헌을 돕는 시강원 관원들과

집사자들의 배치는 (그림 10)과 같이 추정된다. 한편 동. 서무중랑 奠爵官은 「國朝五禮儀序禮」에 의하면 각 10인으로 구성되며 전작관 이하는 성균관 관원으로, 중랑 諸執事는 학생으로 충당한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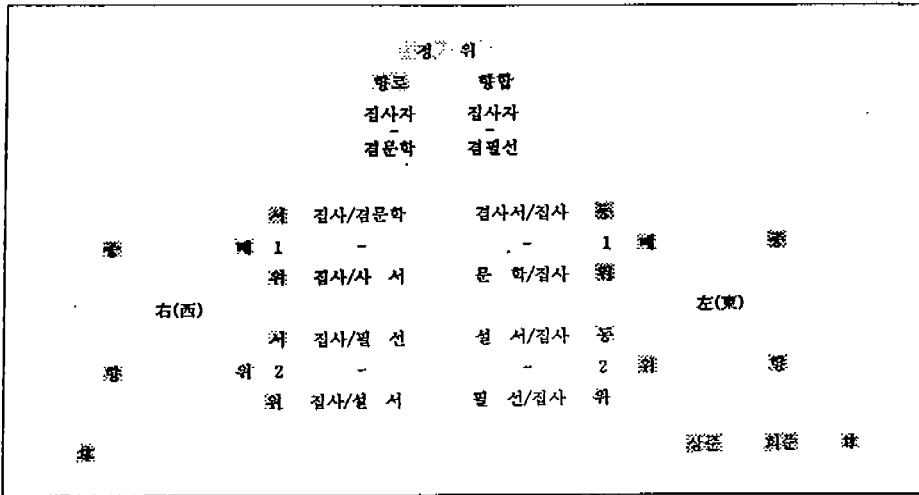
고 하였으나 「작헌례」 그림상에는 동무와 서무에는 홍직령을 착용한 성균관 관원 1인과 학생복을 입은 학생 2인이 번갈아 가면서 9인이 서 있고 각각 東西 從후 신위 쪽을 향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8) 罍·匱·洗
 (「國朝五禮儀序禮」卷之一 吉禮 祭器圖說)



(그림 9) 象尊·犧尊·罍
 (「國朝五禮儀序禮」卷之一 吉禮 祭器圖說)



(그림 10) 작헌례 종관·집사자 및 제기 배치도

3. 명륜당에서의 入學儀

1) 의식 과정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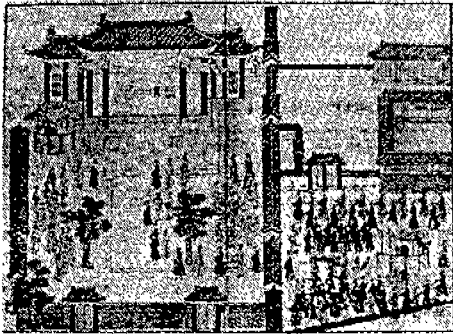
(1) 왕복의

입학례를 치를 시간이 되면 예모관은 편차³⁸⁾ 앞에 꿇어 앉아 행사 시작을 청한다. 왕세자가 학생복을 갖추어 입고 나와서 輔德의 인도로 명륜당에 들어가 대문 동쪽에서 서향으로 선다. 鼎籠(紵布 3필)과 酒壺(2말)과 脩案(5艇)을 왕세자 서쪽에서

북향하여 겹줄로 하여 벌려 놓되 서쪽을 상위로 한다. 박사(右賓客)는 공복을 갖추고 집사자의 인도로 명륜당 동계 위에서 서향하여 선다. 將命者는 문 서쪽에서 동향하여 서서 “감히 행사를 청합니다”라고 한다. 왕세자는 약간 앞으로 나서서 “저는 선생님께 수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다. 장명자가 들어가 고하면 박사는 “저는 부덕하니 왕세자에게 욕이 되지 않기를 청합니다”라고 한다. 장명자가 나아가 고한다. 왕세자가 “저는 선

생님께 수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굳이 청하니 장명자는 들어가 고한다. 박사는 “제가 부덕합니다만 왕세자께서 就位하시면 감히 나아가 뵈겠습니다”고 한다. 장명자가 나가 고한다. 왕세자는 “제가 감히 선생님을 빈객으로 뵈 수 없습니다. 뵈도록 해 주시길 청합니다”한다. 장명자는 들어가 고한다. 박사는 “제가 사양할 수 없게 되었으니 명을 따르겠습니다”한다. 장명자가 나가 이를 고한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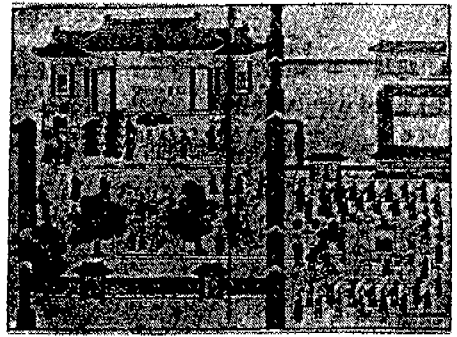
執篋者는 籠을 들고 동향하여 왕세자에게 준다. 왕세자는 광주리를 집비자에게 돌려 준다. 집비자가 먼저 인도하고 보덕의 인도로 왕세자가 문에 들어가 왼쪽에 선다(繼扇陪衛는 문 밖에 멈춘다). 酒壺·脩案을 받든 자들이 뒤 따른다. 박사가 동계로 내려와 서향하여 기다린다(그림 11).



(그림 11) 왕복의

(2) 수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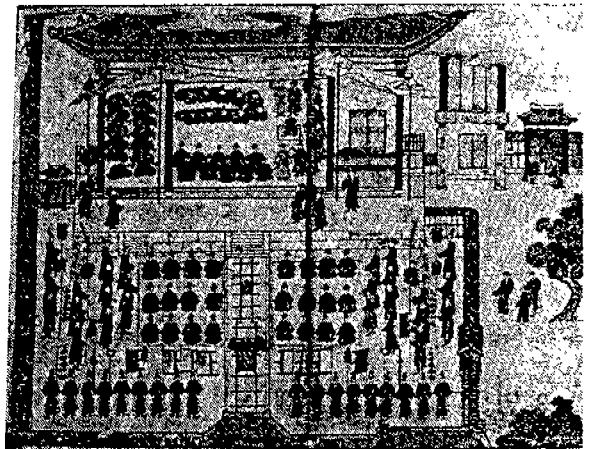
왕세자는 명륜당 서계로 올라가고⁴⁰⁾ 박사는 동계로 올라가 서향하여 선다. 집비자가 왕세자의 오른쪽에 꿇어 앉는다. 왕세자가 꿇어 앉아 再拜하면 박사가 재배로 답배한다. 왕세자가 꿇어 앉아 광주리를 올리면 酒脩를 받든 사람들도 따라서 박사 앞에 내놓는다(그림 12). 박사는 꿇어 앉아 광주리를 받아 집사자에게 건네 준다. 또 집사자는 꿇어 앉아 酒脩를 받고는 물러 난다. 보덕의 인도로 왕세자는 북향하여 명륜당을 향하여 재배하고는 편차(명륜당 문 안에 설치한다)에 나아가 기다린다.⁴¹⁾



(그림 12) 수폐의

(3) 입학의

박사는 黑圓領⁴²⁾으로 갈아 입고 당에 올라 자리에 나아간다(명륜당 동벽에서 서향으로 重席을 마련한다). 보덕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 박사 앞에(임시로 자리 1장을 마련한다) 나아간다. 집사자가 박사 앞(책상이 있다)과 왕세자 앞에 책⁴³⁾을 놓는다. 책을 읽고(그림 13) 뜻풀이를 마치면 집사자가 책상과 책을 치운다. 보덕의 인도로 왕세자는 서계로 내려와 편차에 나아간다. 환궁할 때는 올 때의 의식과 같다.



(그림 13) 입학의

2) 명륜당에서의 행사 참여인물

입학의는 성균관의 관원들과 학생인 유생, 세자궁의 시강원 관원들이 이끄는 행사로서 행사에 참여되는 인물들은 <표 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5> 입학의 참여인물

인 물(품계)	所屬衙門	역 할	복 식
왕세자	-	입학례 장본인	학생복
예모관(겸보덕·종3품)	세자시강원	왕세자 좌측 보필	사모·흑단령
보덕(종3품)	세자시강원	왕세자 공식적 인도자	사모·흑단령
집사자	성균관유생	입학례의 집도 (집비자·집주자·집수자 등)	학생복
박사(右賓客·정2품)	성균관	왕세자 스승	공복(幞頭·紅衫·也字帶) 상복(사모·흑단령)
將命者	성균관유생	박사와 왕세자간의 前言者	학생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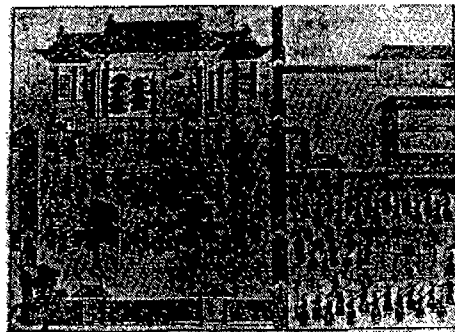
4. 受賀儀

1) 의식 과정

수하의를 행할 시간이 되면 궁관들은 각각 자기에게 맞는 복장(문관은 흑단령, 무관은 기복)을 입고 의위사에서 所部들에게 仗衛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사복시의 관원은 輿·轎과 仗馬를 상시 같이 배치시킨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각각 흑단령을 입고 때 맞춰 門外位에서 자리하고 陪衛之官(의위 2인은 靈劔을 차고 사어 2인은 弓矢를 찬다)은 閤에 나아가 맞이한다. 예모관이 閤 밖에 나아가 꿇어 앉아 內殿하기를 청한다. 잠시 후 또 外備를 하라고 아뢴다. 왕세자가 遠遊冠과 絳紗袍를 갖추어 입고 나와 자리에 앉는다. 陪衛는 상시와 같다(자리 뒤에 翊衛 2인이 좌우로 나뉘어 서고 司禦 2인이 나뉘어 선다). 궁관과 집사관이 서쪽 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와 동서로 나뉘어서(시강원과 집사관은 동쪽, 의위사는 서쪽에) 重行으로 북향한다. 재배를 마치면 각각 就位한다(보덕 이하는 좌우로 나뉘어져 당내 좌우에 배좌하고 의위 이하는 뜨락 동서쪽에 나뉘어 서고 師 傅, 貳師⁴⁴⁾가 와서 하례하면 단지 예모관이 나와 모시며 다른 이들은 모두 뜨락의 동, 서 자리에 있다).

引儀⁴⁵⁾는 종친. 문무 2품 이상이 들어 오면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온다. 예모관이 왕세자 자리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시길 청한다. 왕세자는 일어나서 자리 앞에 선다(만약 사·부와 이사가 있으면 왕세자는 동계에서 내려와 서 있다가 사·부,

이사가 계단에 오르면 왕세자는 자리로 올라가 선다). 예모관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陪位로 돌아간다. 인의가 분인하여 종친, 문무 이품 이상은 서계로 올라 堂의 배위에 나아간다. 贊儀가 ‘鞠躬再拜興平身’이라고 창하면 이품 이상은 국궁 재배하고 頓首로 興平身한다. 왕세자는 답례로 재배한다(控首한다. 만약 사·부와 이사가 있으면 頓首한다.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請한다). 代致詞官이 서계로 올라 나아가 座前에서 동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贊儀가 ‘跪’라고 창하면 이품 이상은 모두 무릎을 꿇는다. 왕세자 역시 꿇어 앉는다. 代致詞官이 致詞한다(그림 14).



(그림 14) 수하의

하례가 끝나면 致詞를 函에 넣고 承文院⁴⁶⁾ 관리가 함을 받들어 議政 앞에 꿇어 앉아 내놓는다. 의정이 함을 받아 承言에게 준다. 승언이 함을 받아 들어간다. 찬의가 부복 재배하고 일어나라고 창한다. 이품 이상이 모두 부복하고 일어나 재배하고 몸을 일으킨다. 왕세자가 답례로 재배한다. 인의가 나누어 이끌어 분인하여 이품 이상이 모두 나간다(사·부과 이사가 참여했으면 왕세자가 내려와 동계 아래에 선다). 예모관이 꿇어 앉아 자리에 올라와 앉으라고 청하면 왕세자가 자리에 올라오고 인의가 분인하여 삼품 이하가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찬의가 ‘鞠躬再拜興平身’하라고 하면 삼품 이하는 국궁하여 재배하고 흥평신한다. 예모

관이 꿇어 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부복하고는 일어나 배위에 들어간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내려와 안으로 돌아 간다. 배위는 올 때의 의례와 같다.

2) 행사 관련인물

수하의는 입학일 다음날 세자궁의 正殿에서 세자가 종친·문무백관들의 축하를 받는 의식이다. 왕세자의 관례 의식 중의 관례 행사 부분 특히 종친·문무백관이 왕세자 관례를 치루기 위해 동궁에 입장하는 과정이나 하례 드리는 과정이 흡사하다.⁴⁷⁾ 행사에 관여되는 인물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수하의 참여인물

인 불(품계)	所屬衙門	역 할	복 식
왕세자	-	수하례 장본인	遠遊冠·絳紗袍(朝服)
종친·문무백관(師·傅, 貳師)	-	수하의 참석자	사모·흑단령
예모관(검보덕·종3품)	세자시강원		사모·흑단령
배위지관(익위·사어)	세자의위사	왕세자 배위	흑단령(익위)/흑립·철릭(사어)
의장대	세자의위사	의장	청모·홍의·청대
집사관	통례원 관원		사모·흑단령
인의	통례원 관원	종친·문무백관 인도	사모·흑단령
찬의	세자시강원	수하의 진행	사모·흑단령
대치사관	승문원 관원	치사를 읽는 임무	사모·흑단령

IV. 결 론

이상과 같이 고려대학교 소장의 「王世子出宮圖」 화첩을 중심으로 화화사적 특징과 아울러 왕세자 입학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왕세자출궁도」는 화화사적으로 왕세자의 입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제작된 기록화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녔기에 조선후기의 기록화가 지닌 표현기법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즉 행사 장면을 산수 등의 배경보다 강하게 부각시키는 기법, 그래서 의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순간에

등장인물들의 순간적이면서도 생생한 움직임을 잘 포착하여 표현하고 있었고, 또 그 의례에 동원되었던 기물이나 의장물들을 대단히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록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후기 기록화 등에서 볼 수 있는 부감법 등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후기 기록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禮道の 융축된 구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궁중의례 중에서도 왕세자 입학례라는 모습을 통해, 교육제도의 일면과 더불어 전통사회의 禮思

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세자의 입학례라는 것은 왕세자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학업을 겸비한 스승을 만나 성군이 되기 위한 길을 닦기 위해 갖추는 중요한 의례로서, 공식적으로는 세자궁을 출발하는 出宮儀와 문묘에 제사드리는 酌獻禮, 박사 즉 스승에게 입학을 허락받는 과정의 往復儀, 승락을 받고 스승에게 웃감과 술·안주를 올리는 脩幣儀, 그 후 講讀과 釋義를 행함으로써 실제적인 수업의 시작을 보여주는 入學禮, 다음날 종친 및 백관들의 축하를 받는 受賀禮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행사가 끝나면 축하의 의미로 慶科라는 과거시험과 행사를 담당했던 공로자들에게 왕이 치하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그 행사가 치루어지는 시·공간은 3월 좋은 날, 세자궁에서 출발하여 성균관의 문묘와 명륜당에서 치루어지고 다시 환궁한 후 행사 다음날 다시 세자궁에서 종친·문무백관들의 하례를 받는 수하의까지의 이틀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이 행사에는 세자궁의 시강원의 관원들을 중심으로 익위사의 관원들이 동원되었고 소속의 장대, 興·鞞을 준비하는 司僕寺, 忠佐衛, 성균관의 관원 및 유생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 외 통례문 관원들, 承文院 관원들, 종친·문무백관들이 참여하는 비교적 큰 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조선조 후기의 왕세자 의장의 모습이라든지 작헌례를 비롯하여 각 의식의 과정과 사용되는 기물, 왕세자를 비롯한 관원들의 座次, 또 그들의 복식에 대한 자료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이 검증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아직까지 궁중의례로서 미처 다루어지지 못했던 입학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제도와 관련된 궁중문화의 의례 일부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본 고찰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1) 金元龍 監修,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서울: 예경, 1994: 174
- 2) 문조세자는 후에 翼宗으로 추존되었으며 현재 神貞翼皇后 趙氏와 더불어 宗廟 正殿의 제15실에 文祖翼皇帝로 그 신위가 모셔져 있다. 김동욱, 『종묘와 사직』, 서울: 대원사, 1993: 76
- 3) 文祖世子가 입학한 때의 나이는 9세였지만(『純祖實錄』 第二十七年 丁丑 三月 甲寅) 다른 왕세자들은 8세에 입학한 경우가 많다(梁大淵 編著, 『新編 太學志』, 서울: 中央評論新聞社, 1960: 89~95 참조).
- 4) 『純祖實錄』 卷二十七 年 丁丑 三月 乙卯
- 5) 安輝濬·邊英燮 編著, 『藏書閣所藏繪畫資料』,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13. 이 『入學圖』의 구성도 고려대 소장의 것과 마찬가지로 6쪽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서 각 의례마다의 중요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세부 표현에 있어서서는 다소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 바, 건물의 부분 묘사나 등장인물의 수, 복식의 색상 등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보인다.
- 6) 서울大學校 奎章閣 편, 『古地圖와 古書로 본 서울』, 서울: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4: 33
- 7) 『중앙일보』, 1996년 1월 27일, 16면
- 8) 文化財管理局 편, 『東闕圖』, 1991: 31
- 9) 부감법이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표현기법이다.
- 10) 文化財管理局 편, 1991: 33~35
- 11) 安輝濬·邊英燮 편, 1991: 13~14
- 12) 左賓客(正二品) 李晚秀와 右賓客(正二品) 南公轍, 左·右副賓客(從二品) 金義淳·金履喬, 輔德(從三品) 徐鼎輔, 兼輔德(從三品) 李憲琦, 弼善(正四品) 李鍾稷, 兼弼善(正四品) 洪敬謨, 文學(正五品) 金炳球, 兼文學(正五品) 尹應大, 司書(正六品) 金在元, 兼司書(正六品) 李奎鉉

- 이고, 說書(正七品) 南履懋이다. 품계는 『經國大典』 卷之一, 『續大典』 吏典 京官職 참조
- 13) 李源福, 「王世子出宮圖」 해제, 『韓國의 美 19 : 風俗叢』, 서울 : 中央日報社, 1993 : 213
- 14) 『漢京識略』 卷之一 宮闕條, 1975 : 31
세자궁은 성종 17년에 재건하여 <東宮>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세자 서연, 신하 접대를 하였다.
- 15) 翊衛司란 世子翊衛司로 正5品衙門의 부서이다. 왕세자에 陪從하여 護衛하는 임무를 맡는다. 『經國大典』 卷之四 兵典,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1993 : 326
- 16) 司僕寺란 車馬와 養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며, 僉正(침정)은 사복시의 從4品の 관직이다.
- 17) 궁관이라 함은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의 관원을 말한다.
- 18) 翊贊이란 世子翊衛司에 속해 있는 正6品 관직으로 왕세자를 보좌하는 임무를 지녔다. 『經國大典』 卷之四 兵典, 1993 : 326
- 19) 輦가 아니라 輿라고 해야 정확할 듯 하다.
- 20) 견고딕의 문장이 (그림 2)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 후 역시 그림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을 추정하여 견고딕 부분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 21) 편차란 행사의 주요 인물이 옷을 갈아 입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천막 공간을 말한다.
- 22) 예컨데 『국조오례의서례』에는 세자 의장의 오장 차비를 司辟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영조대에는 모두 총관위로 하고 紙帽와 黑衣를 입도록 하였다(『英祖實錄』 三十七年 三月 壬子).
- 23) 白英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4 : 2~3
- 24) 이 단계는 행렬상 다시 길 인도, 분장, 어가행차, 수행행차로 구분된다. 白英子, 앞 책, 1994 : 5~6
- 25) 洪淳權, ‘의장반차도 儀仗班次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7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618
- 26) 『國朝五禮儀序例』 卷之二 嘉禮 鹵簿圖說
- 27) 文化財管理局 편, 1991 : 118
- 28)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서울 : 一志社, 1987
- 29) 鶴駕라고도 한다. 『純祖實錄』 十七年 三月 乙卯
- 30) 관세위는 작헌하기 전에 손을 씻는 장소이다.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릇과 수건이 광주리에 담겨 놓여지게 된다.
- 31) 配享에는 네 분을 모시는데, 원래는 正位東南 西向北上이지만 자리가 협소하여 顏子와 子思는 정위의 동남에서 서향해 모셨고 曾子와 孟子는 西南에 東向하여 모셨다고 한다. 『國朝五禮儀序例』 卷之一 吉禮 祭器圖說 文宣王廟, 1979 : 369~370
- 32) 殿內的 東西에는 閔損 이하 16분 즉 十哲 및 宋朝 六賢이 모셔지고, 東西 兩廡에는 중국 현유들과 신라 1인, 고려 1인, 조선 7인으로 각 9분씩 모셔서 56인씩 모두 112인을 모셨다. 曹秉奎, 『韓國教育史』, 서울 : 培英社, 1968 : 49
- 33) 犧尊은 소 형상의 尊이다. 고대 동양에서는 제사 때의 희생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이 ‘수소’라고 한다. 원래는 天祭에 사용되었던 것이나 종묘 등의 제사에도 쓰였으며 수소의 의미가 그릇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하겠다(琴章泰, 『儒教思想과 宗教文化』, 서울 :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4 : 205).
- 34) 酌獻文宣王(配位及從享同)條
正配位各犧尊一(實以清酒)在殿上東南隅(配位尊在正位酒尊之東) 殿內東西及兩廡各象尊一(實以清酒)
皆加勺罍在戶外之左(兩廡則在廡內 ○洗爵實於篚各置於尊所) (『國朝五禮儀序例』 卷之一 吉禮)

- 35) 朴景燮, 『韓國의 禮俗研究』, 서울:서광학술자료사, 1994: 138
- 36) 『國朝五禮儀序禮』卷之一 吉禮 齊官 文宣王酌獻條
- 37) 入學儀 과정에는 往復儀와 脩幣儀가 포함되어 있다.
- 38) 「입학례」 그림상 명륜당 뒤 오른쪽에 마련된 편차는 박사용이고 명륜당 앞 서쪽과 명륜당 문 밖에 마련된 것은 왕세자용이다.
- 39) 여기까지가 往復儀에 해당된다. 즉 將命者가 세자의 입학울 허락 받기 위해 博士와 王世子 사이를 왕복하면서 傳言하는 과정의 의식이다.
- 40) 서계로 오른다 함은 賓禮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 박사는 東階로 오르니 주인의 禮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오르는 계단의 위치로 보아 역시 입학례에서는 박사의 지위가 세자보다 높음을 드러낸다. 이은주, '좌·우 개념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민속학회 연례발표회 요지 참조, 1994: 1~4
- 41) 여기까지의 과정이 脩幣儀에 해당된다. 즉 입학울 허락 받고 선생님께 脩幣를 올리는 의식이다.
- 42) 『純祖實錄』에는 '常服'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43) 『純祖實錄』에 '小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44) 師·傅·貳師란 세자시강원의 최고위의 겸임 직인데, 師가 정1품으로 영의정이 겸임하고, 傅 역시 정1품으로 의정이 겸임한다. 貳師는 종1품으로 贊成이 겸임한다. 『經國大典』, 1993: 79~80
- 45) 引儀란 通禮院의 종6품 벼슬을 말하며, 동례원이란 조선시대 국가 의식을 맡아 보던 관청으로 관원으로는 左右通禮(正3品) 등 10여 명을 두었다. 柳洪烈, 『國史大辭典』, 서울:教育圖書, 1989: 1467
- 46) 承文院은 事大交隣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1품인 都提調의 정원은 3명이고 의정이 겸임한다. 2품 이상의 관원을 提調라 하

고 通政大夫인 관원은 副提調라고 한다. 『經國大典』, 1993: 63~64

- 47) 李正玉, 『冠禮服飾研究』, 大邱:嶺南大學校出版部, 1990: 82~86

ABSTRACT

The Study of Costumes in Wangse ja Chulgungdo

-Centering around Its Ceremony-

「Wangseja Chulgungdo」(The Painting for a Crown Prince's Outgoing for Schooling to *Sungkyunkwan*) for this study, which is held by the Korea University Museum, is a kind of documentary paintings which not only have the value of art history but also give a glimpse of the court ceremonies for a Crown Prince. This painting offers various historical clues to understand the procedure for a Crown Prince's official entrance of *Sungkyunkwan*, participants of the ceremony, and other ceremony-related items. 「Wangseja Chulgungdo」 was the painting drawn for a series of court procedures of Crown Prince *Munjo's*(1809~1830) official entrance of *Sungkyunkwan*. When he was old enough to begin learning *Sohak*, on March 11, 1817, that is: he held *Heonjakrye*(a ceremony for offering drinks to the ancestors) at *Munmyo*, passed *Iphakrye*(a ceremony for entrance of school) at *Myungryundang*, and received *Suharye*(getting back drinks) the next day.

「Wangseja Chulgungdo」 had the strong characteristics of documentary paintings in terms of art history which was intended to leave the historical event of a Crown Prince's entrance.

It reflected the traits of documentary painting style in late *Chosun* Dynasty ; a technique that strongly relieved the ceremonial scenes against the background such as mountains and rivers ; a painting that not only captured the vivid actions of personalities at the crucial moment of the ceremony, but also depicted the cer-

emonial vessels and items very realistically.

Authors could confirm the ceremonial thinking of the traditional society through a Crown Prince's entrance which controlled the details of every part of the performances of the court ceremony.